



# 의정부주보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 103위 성인

### 성 허협 바오로 (1796-1840)

독실한 교우 가정에서 태어난 허협은 기해박해가 한창인 1839년 8월 체포되었다. 포청에서 매우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잘 참아내던 그는 극심한 형벌을 이겨 내지 못한 채 배교의 뜻을 밝히고 말았다. 하지만 이내 배교를 취소했고, 배교 취소의 표시로 인분 한 사발을 마시라는 형리의 말에 아무 거리낌 없이 그것을 다 마셔 배교 취소를 증명해 보였다. 그 뒤 허협은 여러 달 동안 포청 옥에서 치도곤 130대 이상을 맞는 등 갖은 형벌과 고문을 받았다. 결국 끝까지 신앙을 지켜 낸 그는 1840년 1월 30일, 포청에서 옥사하여 순교하였다. 당시 나이 45세였다.



성화\_민지현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소리 주보 ▶



제1독서 사도 4,32-35

화답송 사편 118(117),2-4.16-18.22-24(◎1)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또는 ◎ 알렐루야.)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주님은 나를 벌하고 벌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제2독서 1요한 5,1-6

부속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파 스 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죽음생명 불사불멸 마 리 아 살아나신 목 격 자 그리스도 너희보다 그리스도 승리하신	어린양이 싸움에서 용사께서 말하여라 주님무덤 천사들과 나의희망 먼저앞서 부활하심 임 금 님	양떼들을 참혹하게 다시살아 무 엇 을 부활하신 수의염포 죽음에서 갈릴래아 저희군계 자 비 를	구하셨네. 돌아가신 다스리네. 보았는지. 주님영광 난보았네. 부활했네. 가시리라. 믿사오니 베푸소서.
--	---	--	---

복음 환호송 요한 20,29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복음 요한 20,19-31

영성체송 요한 20,27 참조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 제단 뿔과 주님의 자비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20세기 후반, 명동 성당은 조계사와 함께 항쟁자들에게 성역(聖域)이 되어주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에는 성당 종지기 콰지모도가 위험에 처한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를 성당으로 끌어들이려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성역의 존재는 구약 시대부터 이어진 전통입니다. 당시에는 제단에 달린 뿔이 피신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브에르 세바와 므기또 유적지 등에서 발굴된 제단이 이런 뿔 달린 형태를 보여줍니다.

제단의 제작 지침은 오경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 탈출 20,25에서는 제단을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요, 정을 대면 그것이 부정해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단을 자연 그대로의 돌로 만듦으로써 그 제사를 통해 자연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대 유다 법전 <미쉬나>(미돗 3,4)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단은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켜주는 구실을 하지만, 정의 재료가 되는 철은 인간의 수명을 단축하는 무기 제작에 사용되어 왔다. 화해의 장소인 제단과 무기로 사용되는 철은 서로 융합될 수 없다.” 그리고 제단의 뿔도 외부에서 만들어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단과 하나인 돌로 만들어야 했습니다(탈출 27,2; 30,2).

제단의 뿔이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도피처가 된 데는 이유



므기또 유적지에서 발굴된 제단

가 있습니다. 우선, 제단은 성막과 성전 제사의 중심으로서 백성이 제물을 바쳐 죄를 씻는 곳이고 동시에 하느님께서 당신을 백성에게 드러내 보이시던 곳입니다(레위 9,23-24; 1열왕 18,38 등). 이런 제단에서 주님의 힘과 자비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부분이 바로 뿔이었습니다. 뿔은 황소 같은 짐승을 떠올려주는 표상으로서 힘의 상징입니다(신명 33,17; 예레 48,25). 시편 18,3에서는 하느님의 권능을 기리며 주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찬양합니다. 시편 132,17에는 주님께서 “다윗에게 뿔(=힘)이 돋게” 해 주신다는 찬송이 나옵니다. 이렇듯 뿔은 제단에서 신성(神性)과 힘이 깃든 중심으로 여겨졌기에, 그것을 자르면 제단 전체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고(아모 3,14), 그것을 잡으면 하느님의 자비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발적으로 살인했거나 억울하게 누명 쓴 이가 제단 뿔을 잡으면 주님의 용서와 보호를 바랄 수 있었습니다. 단, 흥계를 꾸며 살인한 경우에는 그 뿔을 잡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탈출 21,14). 결국 제단 뿔은 구약 시대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공정하고 자비로운 성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구원의 뿔은 신약 시대에 성자 예수님으로 육화(肉化)하기에 이릅니다. 루카 1,69에 나오는 “힘센 구원자”를 직역하면 ‘구원의 뿔’입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 중 위험에 처한 이들을 명동성당이 보호해준 예에서 보듯, 뿔을 지닌 구약 시대 제단의 의미와 기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 의정부교구민에게 드리는 첫 인사

+ 찬미 예수님!

의정부교구 교형자매 여러분, 그리고 수도자와 사제 여러분! 저, 손희송 베네딕토가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뵈 날을 고대하며 우선 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2024년 3월 13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으로부터 의정부교구 제3대 교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2015년 8월부터 서울대교구의 보좌 주교로, 2016년 6월부터는 교구 총대리로 일했습니다.

신부님들은 보좌나 부주임으로 있다가 본당의 주임이 되면 많이 기뻐합니다. 서울대교구에서 9년 보좌 주교로 있다가 의정부교구라는 큰 공동체의 주임이 된 저도 참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새롭게 일하게 된 곳이 의정부교구라 더욱 기쁩니다. 의정부교구는 서울대교구와 한 뿌리였다가 독립했기에 이웃사촌처럼 친근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정부교구에 제 고향인 연천이 있어서 마치 고향으로 돌아온 듯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두 배, 세 배가 되는 느낌입니다.

물론 제 마음 한쪽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구장 주교는 보좌 주교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고, 더 많은 고민거리가 있기에 두려움이 큼니다. 또한 의정부교구는 이웃사촌 같은 교구이고 제 고향이 속한 교구라 더 마음이 가기 때문에, 제 소임을 잘 수행해야 할 텐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부족한 도구로도 당신의 일을 하실 줄 아는 분이시고, 또한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분'(로마 8,28)이라는 믿음으로, 아울러 여러분의 항구한 기도에 의지하여 저의 두려움과 염려를 달래고자 합니다.

올해는 의정부교구 설정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에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맺어 주셨습니다. 초대 교구장으로서 교구의 기틀을 놓아주신 이한택 요셉 주교님, 제2대 교구장으로서 교구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이기현 베드로 주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두 분 교구장님께서 잘 가꾸어 놓으신 주님 포도밭에서 저 역시 주님의 일꾼으로 성실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구 공동체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마르 3,3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혈연이나 지연 혹은 이념이나 이익을 중심으로 뭉치는 집단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가운데 모시고 사는 당신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뜻, 우리의 뜻, 세상의 뜻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느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교구 공동체가 세상을 좀 더 밝게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하게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치도록 합시다.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고, 성모님과 성 요셉 그리고 우리 교구의 주보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전구를 청하면서 저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2024년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에  
+ 손희송 베네딕토



## 부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지난 사순시기에는 암흑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고전적이면서 인간미 넘치는 프란치스코 고야(1746-1828)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못 박은 이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억압된 현실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믿었던 이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그들은 한때 가졌던 희망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감은 비이성적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마음은 알팍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라고 여길 땐 열광하다가, 희망이 꺾이자 언제 그랬냐는 듯 돌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죽음’을 외칩니다. 이 같은 비열함과 악함은 나약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감히 장담할 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는 절망의 암흑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과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준 신비의 사건입니다.



권녕숙,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2023년  
목판에 에그템페라, 14.5×19×1.5cm

여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고야의 고전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치 어린이가 그린 듯 단순하고 순수한 모습이어서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는 ‘인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고야의 캄캄한 배경이 아닌, 밝고 경쾌한 생기가 느껴지는 붉은 십자가에 달려있습니다. 붉은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바로 ‘희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이는 죽음으로 인한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희망’ ‘정열’ 그리고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암시는 십자가의 테두리를 두르는 가는 녹색과 그 안의 새싹이 움트듯 이어진 백색의 점들로 드러납니다. 약간 어눌해 보이는 예수님은 두 눈을 꼭 감고 입을 다문 채, 세상의 모든 것에 초연한 듯 보입니다. 그분이 고귀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알려주는 건 가시관을 쓴 둥근 머리 주위에 눈부신 황금색 후광과 십자가의 황금 테두리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부활’과 ‘영생’의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을 못 박은 세상을 안으려고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는 예수님.

높이 20cm가량 되는 이 작은 십자가상은 한국 가톨릭 미술계의 원로인 권녕숙 리디아 선생의 작품입니다. 멧을 내어 인위적으로 꾸며낸 성스러움이 아니라 소박하고 진솔한 그리스도 모습이어서 더욱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지독한 사랑은 죽음이 아닌 ‘부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의 지성인 박갑성(朴甲成, 1915-2009) 선생은 “현대는 무엇보다 부활에 대한 희망을 회복해야 인간회복의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희망은 막연히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된 나의 뿌리와 죽음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내가 밭 딛고 있는 자리를 끊임없이 되새길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희망이 깃든 십자가에는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



교구  
소식

**고등부 예비 신학생 모임**

일시 4/14(주일) 13:30

장소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 4월 중등부 예비신학생 모임 없음은 성소 주일 행사로 대체합니다.

**2024 DMZ 평화의 길 도보순례**

날짜 4/26(금)~28(주일), 5/24(금)~26(주일)

코스 김포-파주-연천-철원

대상 초3 이상 누구나 (차수별 40명 선착순)

회비 15만원

문의 031-941-2766, www.pu2046.kr 민족화해센터

**청소년사목국 국제행사 동반자 모집**

청소년사목국에서 진행하는 가톨릭 홈스테이(C-Stay)와 세계청년대회(WYD) 준비에 함께할 동반자를 모집합니다.

첫모임 4/20(토) 13시

장소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의정부교구 제48기 아버지학교 안내**

일시 4/7(주일) 13:30~17시 [4주간]

장소 주엽동 성당

회비 10만원

문의 0505-5660-0001

**의정부교구 ME 제140차 주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창세 2,18).

날짜 4/26(금)~28(주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대상 3년 이상 혼인생활 중인 부부

문의 010-4515-3854 ME주말분과 대표

전신자 성경 읽기

4/7(주일)~13(토) : 루카 9,7-27



4/27(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교구  
소개

**⑦ 대건카리타스 <남거나 모자라지 않는 세상>**

대건카리타스는 의정부교구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04년 교구설립 이후 우리 교구 내 가톨릭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전문적인 실천을 위해 2007년 교구 주보이신 성 김대건 신부님의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20개의 직영 및 위·수탁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정부교구에서 활동하는 수도회가 운영하는 20개의 등록 시설과 함께 의정부교구 가톨릭사회복지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구 내 본당과 제 단체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100원의 행복충전소> <온누리 난방지원> <긴급구호지원> <요한학자금 지원> <청소년 결연후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당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도직 단체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카리타스를 통해 국내외 지구촌 공동체 사랑의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림 제3주일 자선주일 특별헌금과 5,000여 명의 후원자, 250여 개의 행복충전소 그리고 기업 및 단체의 후원과 봉사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인 카리타스 정신, 그리스도인의 자선 실천을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펴나가며 ‘남거나 모자라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  
CARITAS DAEGUN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601-279548

후원 문의 031-850-1483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일 기도회**

찬양과 치유기도회  
일시: 4/12(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문의: 010-2127-0032

**이혼 아픔 회복을 위한 비긴어겐 피정 2차**

일시: 4/20(토)~21(주일)  
장소: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  
문의: 02-3789-2586 ICPE선교회

**2024 한마음 청소년 힐링 음악캠프**

일시: 8/5(월)~7(수), 8/7(수)~9(금) 15시  
대상: 청소년부(중고등부)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접수: 5/31까지 [선착순 80명], 회비: 23만원  
문의: 010-5399-7626 권성일 미카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낙태 후 화해피정 - 착한목자수녀회**

일시: 4/19(금)~21(주일) [2박 3일]  
장소: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인천) / 회비 없음  
문의: 010-6637-1366 변 바울라 수녀

**온라인(Zoom) 33일 묵상회**

일시: 4/29(월) 20시 [5/31(금) 봉헌]  
회비: 3만원 (교재 포함)  
접수: 010-2724-4819 서울 마리아학교

**파티마 평화의 성당 피정**

매달 첫토요 성모신심 피정: 5/4(토)  
매주 목요일 피정: 이한택 주교 강의  
매달 13일 파티마성모님 발현 기념 피정: 4/13(토)  
시간: 10시~14시 미사  
문의: 031-952-6324 파티마 평화의 성당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천주님의 성당은? 애덕이 가득한 우리 마음이다.  
일시: 4/13(토) 14시~18시 / 장소: 구산성지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지도: 정종득 신부, 성가: 고영민 / 회비: 1만원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영신수련 2박 3일 피정: 4/12(금)~14(주일)  
세월의 지혜와 영성 피정(65세 이상): 4/24(수)~5/3(금)  
엄마와 딸(미혼)피정: 5/11(토)~12(주일)  
장소: 서울 오류동 (1,7호선 온수역 10분)  
문의: 010-6890-7223 예수수도회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2024 미사 안내**

“Sleeping with Bread” and Mass (빵 미사)  
일시: 매주(토) 18시  
Family Mass with crying baby (가족 미사)  
일시: 매(주일) 11시  
문의: 031-901-1460, 850-1456 청소년사목국

**평화 학교 - 성 베네딕도 왜관수도원**

1차: 5/18(토) 15시 ~ 19(주일) 13시  
2차: 6/22(토) 15시 ~ 23(주일) 13시  
3차: 7/20(토) 15시 ~ 21(주일) 13시  
4차: 8/24(토) 15시 ~ 25(주일) 13시  
장소: 왜관수도원 내 피정의집  
회비: 8만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10-6791-0071(문자)

**4월 토요일 치유 대피정**

일시: 4/13(토) 12시~17:30 (미사 안수 있음)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중식 무료)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2일: 5/11(토)~12(주일), 6/8(토)~9(주일)  
3박4일: 5/27(월)~31(금), 4박5일: 6/27(목)~30(주일)  
8박9일: 4/15(월)~23(화), 5/1(수)~9(목)  
40일: 10/4(금)~11/12(화)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서강대학교 - 영성의 책꽂이**

일시: 4/15(월) 14시~16시 (강의, 미사)  
장소: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무료]  
주제: 삶이 고통으로 휘청거릴 때  
강사: 송봉모 신부 (예수회)  
문의: 02-705-4711

**부부나들이 피정**

일시: 5/25(토) 14시 ~ 26(주일) 17시 / 아론의 집  
강사: 홍성남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회비: 20만원 (1부부 / 비신자 참여 가능)  
신청 131-022-218086 가정선교회  
(입금 후 연락)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010-3661-5500 고영민 부회장

**청년 성소 식별 피정**

일시: 4/20(토)~21(주일) [1박 2일]  
장소: 해미국제성지 / 회비: 3만원  
대상: 만39세 이하 성소식별을 원하는  
가톨릭 미혼 남·여  
문의: 010-8462-8184 하비에르 신부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4/12(금)~14(주일), 5/10(금)~12(주일)  
성경 완독: 4/19(금)~27(토), 5/17(금)~25(토),  
6/21(금)~29(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30~16시 / 명동가톨릭회관 7층  
강사: 4/9(화) 배광하 치리아코 신부  
담당사제: 김종국 신부  
문의: 010-5514-4077 회장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시스피나 음악원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성 소 모 임	성심수녀회	4/20(토) 14시~17시	성심수녀회(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9284-0304
	한국외방선교회	5/5(주일) 11시	서울 성북동 본원	010-8715-2846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4/7(주일) 13:30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본원(서울 미아동)	010-9816-0072
	의정부가르멜 여자수도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35세 미만 미혼 여성		010-8078-7016

한국어교실 자원봉사자 모집

인원: 1명 (한국어교실교원자격증 보유)
일시: 매주일 10시~13시, 14시~17시
장소: 파주엑소더스 한국어교실
(조리음 송비말길 79-39)
문의: 031-948-8105 파주EXODUS

해외 가톨릭 보딩 스쿨 설명회

일시: 4/13(토) 11시
(예약 필수, 현지 학교 관계자 참석)
학교입학: 초5~고2, 미국·아일랜드 6개월 이상
여름캠프: 초3~중2, 더블린(남), 보스턴(여)
문의: 02-2258-8983, 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례지오회 해외학교법인

2024년 순교영성아카데미 - 순교영성특강 시리즈

<순교영성>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특강
- 성경, 교의, 역사, 영성, 인문사회과학 등
4/11(목) 개강미사 (주례: 양남규 총원장 신부)
제1강: 해외선교사의 삶 통해 나누는 순교영성, 두봉 주교
4/25(목) 제2강: 순교의 인류학적 고찰
-공감과 순교의 관계, 한창호 신부(복자수도회)
일시: 둘째·넷째(목) 14시~16시 / 새남터 순교성지
문의: 02-3275-1485, www.kmartyr.com

서강대 신학대학원 2024후기(주간) 신입생 모집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
(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
(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석·박사통합: 신학,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접수: 4/22(월)~5/2(목), 전형일: 5/18(토)
문의: 02-705-8668, gsot.sogang.ac.kr

성바오로수도회 레벤복스 북토크

일시: 5/18(토) 14시
장소: 성바오로수도회 미아동 본원
주제: 레벤복스 신간 「행복@로컬」
정석의 하동·목포·전주·강릉 한달살이 이야기
강사: 정석 예로니모 교수
문의: 010-2557-1361

치위생사 자원봉사자 모집 - 파주EXODUS

일시: 매주일 13시~17시
(총 4명의 봉사자 월 1회 봉사)
장소: 파주엑소더스 치과진료실
(조리음 송비말길 79-39)
문의: 031-948-8105 파주EXODUS

안찰라도미니 그레고리오 성가 단원 모집

그레고리오 성가에 관심 있으신 여성
문의: 010-9729-2346 시스피나 음악원(신촌)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할인 & 수료 이벤트

복수 과목 신청 시 할인 & 수료시
25,000 포인트 지급 (단과 제외)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늘푸른 자활의 집 -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19~50세 남성 /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green1004.or.kr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운영 양로원 기금
가격: 청국장(500g) 1만원, 연잎밥 1만원 (택배 가능)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5/13(월) 동유럽 5개국 (12일, 525만원)
5/20(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55만원)
5/20(월)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6/3(월) 중부 유럽 3개국 수도원 순례 (11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여행사 619호
www.catholictravel.co.kr

가톨릭 여성 심리 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 상담
시간: 10시~16시(월~금) / 문의: 02-990-9366

강우일 주교님과 함께 걷고 듣는 제주이야기

날짜: 5/23(목)~25(토) 성모의 밤, 6/19(수)~21(금)
장소: 성 이시돌 피정의 집 (통합사목센터)
대상: 개인, 단체 (구반장 맞춤형 피정 환영)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한티 가는 길 - 도보 순례

3차: 5/6(월)~8(수), 4차: 6/6(목)~8(토)
5차: 9/25(수)~27(금), 6차: 10/10(목)~12(토)
7차: 11/25(월)~27(수)
장소: 왜관수도원 피정의 집
연화리 피정의 집 (3차, 6차)
참가비: 25만원 [2박 3일]
문의: 010-6791-0071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5/7(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6/7(금)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3일, 560만원)
9/26(목) 조지아, 아르메니아(초기교회) (10일, 440만원)
10/9(수) 터키, 그리스 (12일, 470만원)
10/22(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11/4(월) 알프스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53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성지순례&성베네딕도왜관(신축) 수도원 전례

5/4(토)~7(화), 7/13(토)~16(화) 수도원, 부산, 마산
6/15(토)~18(화) 수도원, 대구
6/28(금)~30(주일) 원주, 청주, 안동
출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후문)
문의: 010-3807-1784 라이시돌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 (연중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자연순례: 5/2(목)~4(토), 5/6(월)~8(수),
5/22(수)~24(금)
추자도 포함: 4/28(주일)~5/1(수)
제주성지순례: 6/16(주일)~18(화)
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자연 순례 피정: 5/14(화)~16(목)
5/27(월)~29(수), 6/10(월)~12(수)
성지 순례 피정: 4/25(목)~28(주일),
5/2(목)~5(주일), 5/8(수)~11(토),
5/19(주일)~22(수), 6/15(토)~18(화)
접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자연 피정

꼬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주 1회)
상담자: 010-3201-0520 노경덕 신부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교토
3박 4일, 120만원 / 문의: 010-3645-9028

라파엘여행사 성지순례

5/27(월) 다낭 성모님 발현지 (155만원)
5/28(화) 이태리 (11일, 545만원)
6/19(수) 초대교회 발자취와 그리스 일주 (11일)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천주교의정부교구 카카오톡 채널 QR code

## 주님 부활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이름, 파스카

파스카(Pascha)는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라는 사명을 주셨고, 모세는 파라오에게 그 사실을 전합니다. 하지만 아홉 번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그 요청을 거절하지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맏아들과 맏배의 죽음이라는 열 번째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탈출 12장에는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이 사건을 기념하게 될 파스카 식사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 ① “이달 초월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 하여라”(3절).
- ② “그것을 열나흘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6절).
- ③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7절).
- ④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8절).
- 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매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11절).

이 규정과 함께 하느님께서 그날 밤 벌어질 일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맏배를 모조리 치겠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12-13절).

이렇게 하여 어린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곧, 어린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르고 지나가다’ ‘건너가다’라는 뜻의 파스카는 축제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대축제인 파스카가 예수님 부활을 가리키는 명칭이 된 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파스카 축제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마태오, 마르코, 루카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신 최후 만찬이 ‘파스카 식사’였다고 전합니다. 한편, 요한복음에서는 최후 만찬이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13,1)에 있었던 일이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증언에 따라 시간을 계산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때는 바로 파스카 축제를 위해 어린양을 도살하던 시점과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의 어린양처럼 피를 흘림으로써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하느님의 어린양”(부활 감사송 1)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파스카는 이스라엘 민족의 축제에서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주님 부활을 가리키는 또 하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h1>행 주 성 당</h1>  <p>성모몽소승천</p>	토 요 일	19:00 토요일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11:00 교 중 미 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 화, 수, 목, 금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전례**

▣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전대사 미사  
일 시: 4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

**▣ 새로 임명되신 행주성당 사목회 명단**

사목회 총무: 구미경 리베라따  
재정분과장: 권우석 라파엘  
남성총구역장: 최성권 야고보  
여성총구역장: 양경희 루시아  
전례분과장: 이영자 세실리아  
시설분과장: 양남수 아오스딩  
사목회 위원 : 성가대 단장, 레지오 단장

\* 본당 인사위원회 조직

사목회장(부재시 여성총구역장), 재정분과장

\* 본당 신부님 직속 단체

연령회장: 박광배 베드로, 성가대 단장: 류은희 소피아  
이상 임명되신 모든 분 들이 행주성당을 위해 주님 안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본당공지**

▣ 하절기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시간 변경 안내  
동절기 동안 토요일 저녁 5시에 봉헌하던 저녁 미사가 하절기 4월부터 9월까지 저녁 7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변경 기간: 4월 6일부터 9월 28일 까지

**우리들의 정성 (3월 25일 ~ 3월 31일)**

▣ 교무금, 주일헌금, 2차헌금

교 무 금	10건	1,500,000원
주 일 헌 금		1,459,000원
성목요일 사순 저금통		851,860원
성금요일 성지 복구		400,000원

**감사헌금**

배현숙	200,000원	김문숙	100,000원
이동준	100,000원	이흥매	20,000원
박성일	50,000원	조석	20,000원
윤숙영	20,000원	이병수	20,000원
류일영	1,000,000원	익명	200,000원

**- 복음 말씀 -**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 교중 미사 주송자, 예물 봉헌 담당**

4월 07일	주송자	신은석(안젤라)
	배성은(소사아가다), 구미경(리베라따)	
4월 14일	주송자	전옥자(수산나)
	윤병수(그레고리오), 석마리아(마리아)	